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오 종 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선시대의 대외관계 및 전쟁에 관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서술 분석

-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한 윤 영

조선시대의 대외관계 및 전쟁에 관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서술 분석

-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

오 종 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한 윤 영

# 인 준 서

한윤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 조선시대의 대외관계 및 전쟁에 관한

####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서술 분석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은 한 국가의 교육이념이나 교육목적을 국가적인 견지에서 요약·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정치적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과서 제도와 서술내용도 함께 개편되었다. 특히 『국사』 교과서가 3차 교육과정기부터 현재까지 약 37년여 동안 국정제로 발행되면서 역사교육이나 교과서가 정치적 이데올로기 및 당대의 정치권력에 의해 서술 방향이 변화하였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등학교 국사』의 서술이 국가·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되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교과서 서술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대외관계사 중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제 1차 교육과정부터 현행의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까지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임진왜란은 조선왕조의 정치체제와 사회경제적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대사건이었으며,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연관된 국제전이었다. 또한 오늘날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때 그 기준으로 임진왜란을 삼는 것을 보아 그 중요성이 현재에도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임진왜란은 특히 3차 교육과정 시기에 대내외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던 유신정권에 의해 국민 통합을 위한 이념으로 국난극복사관이 강조되면서 그 전개과정에서 의병과 이순신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어 서술되었다. 또한 4차 교육과정 시기에도 군사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3차 교육과정 시기에서 강조된 국난극복사관, 영웅사관 등이 더욱 강조되어

교과서에 서술되었다.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계각층 구성원 전반의 희생적 노력의 결과일 터인데 이것이 영웅사관에 가려 교과서에 서술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다. 또한 외세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국민의 일체단결을 조장하는 국난극복사관이 개입되었다는 점, 전쟁사에 대한 비중이 약화되면서 현행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전쟁의 원인에서부터 영향까지의 서술이 추상화되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발견되었다.

민족사의 전개과정에서 전쟁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일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다. 문제는 국가 중심의 시각에서 국난을 인식함으로써 민족의 전쟁사를 국가적·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강조하거나 왜곡한다는 점이다. 『국사』 교과서가 국가·사회적 요구로부터 객관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제 3차 교육과정부터 실시되어 온 국정제로부터 벗어나 검·인정제 하에서 발행되는 것이다.

역사교과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자기 민족, 국가 입장의 역사 서술 경향을 보인다. 완전히 객관적인 서술, 가치중립적인 서술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도 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세태에서 『국사』 교과서가 내용 선정과 구성에 있어서 객관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과거 역사의 반성과 그것을 토대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의식이 함양될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교육과정의 변천과 국사 교육의 국난극복사관	4
III. 조선시대 대외관계 단원 구성의 변화	9
IV. 임진왜란 관련 서술 분석	16
1.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	16
2. 수군의 승리	21
3. 의병의 승리	25
4. 명의 참전과 강화회담	30
5. 임진왜란의 영향	32
V. 결론	35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 차

《표 1》 1차~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목표 비교	5
《표 2》 1차~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조선시대 대외관계사가 포함된 단 원 비교	10
《표 3》 1차~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임진왜란 관련 소단원 비교	12

## I. 서 론

한 국가의 교육이념이나 교육목적을 국가적인 견지에서 요약·표현하고 있는 것이 교육과정이다. 한국의 교육과정은 정치 변화와 관련하여 1차~현행 7차 교육과정<sup>1)</sup>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이 고시하는 교육 과정에 입각하여 서술된 한국의 교과서도 함께 개편되었다.<sup>2)</sup>

국가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통제<sup>3)</sup>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최대의 논쟁점이기도 하다. 특히 국사 교과서가 국정제로 편찬됨으로써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sup>4)</sup> 오랫동안 제도교육이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현실에서 역사교육이나 교과서가 정치나 이데올로기, 특히 당대의 정치권력에 의해 서술방향이 변화하였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연구 성과가 다수 배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교과서 발행제도와 같은 큰 틀에서 접근하여 분석<sup>5)</sup>하거나, 국사 교과서의 경우 근·현대사 서술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조선시대나 그 이전시기에 관한 연구는

1) 1차 교육과정기 : 1955~1963년

2차 교육과정기 : 1963~1974년

3차 교육과정기 : 1974~1981년

4차 교육과정기 : 1981~1988년

5차 교육과정기 : 1988~1992년

6차 교육과정기 : 1992~1997년

7차 교육과정기 : 1997년~

2) 교육과정에는 각 교과서의 목표와 내용체계는 물론 교수학습방법과 지도 및 평가의 유의점까지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에는 대단원과 중단원, 그리고 중단원의 내용요소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과정은 교과 구성의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실제의 교과서 내용은 집필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한중, 「한국의 교육개혁과 역사교과서」, 『강원인문논총』 제5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342쪽.

3) 제 4차 교육 과정에서는 개정시안을 연구 개발한 한국교육개발원이 1979년 12월에 문교부에 답신 보고한 「국민학교 교육 과정 개선」이란 연구 보고서에서 교육 과정이란 「학교에서 전개되고 실현될 교육 실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정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국가 수준에서 규정하는 의도되고 문서화된 계획」을 의미한다고 했다. 제5차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해설』, 문교부 고시 제 88-7호 (1988. 3. 31).

4) 김한중, 위의 글, 342쪽.

5) 류승렬, 「해방 후 교육과정 변천과 역사교과서의 위치」, 역사교육 60집, 역사교육연구회, 1996.

이병희, 「국사교과서 국정제도의 검토」, 『역사교육』 91집, 역사교육연구회, 2004.

안병우, 「국사 교과서 검정제에 관한 검토」, 『국사 교과서 발행제도 개선연구』, 국사편찬위원회, 2003.

미흡한 편이다.

한편,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족주의는 전근대사의 서술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대외관계사와 전쟁에 관한 서술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전쟁이라는 큰 국가적 위기에서 일치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한 역사를 강조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복종을 정당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국사』의 서술이 국가·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되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교과서 서술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대외관계사 중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제 1차 교육과정부터 현행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까지 살펴볼 것이다.

임진왜란은 조선왕조의 정치체제와 사회경제적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대사건이었으며,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연관된 국제전이였다. 또한 오늘날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때 그 기준으로 임진왜란을 삼는 것은 그 중요성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근거일 것이다. 이러한 임진왜란은 특히 3차 교육과정기의 국난극복사관의 강조와 4차 교육과정기의 국민 정신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그 전개과정에서 의병과 이순신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어 서술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개편될 교육과정에서는 종래의 식민사관이나 영웅사관, 그리고 국난극복사관과 민족주의사관 등을 지양하고 전쟁이 일어난 원인과 과정, 결과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1차 교육과정기의 검정 교과서에서는 이병도의 저작을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그의 저작이 검정시대(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초기)의 가장 대표적인

6) 신병철, 「권력의 홍보물 국정 국사 교과서 -국정 국사 교과서 현대 부분 분석-」, 『교과연구』 7, 통일시대교육연구소, 1996.

서중석, 「국사교과서 현대사 서술」, 『역사비평』 56, 역사비평사, 2001.

도면희, 「한국근대사 서술에서의 민족·국가문제」, 『역사비평』 58, 역사비평사, 2002.

국사 교과서였기 때문이다. 그 외에 2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는 1971년 판 신석호의 『고등학교 국사』, 3차 교육과정 시기는 최초의 국정 교과서인 1974년 판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4차 교육과정 시기는 1981년 판, 5차 교육과정 시기는 1990년 판, 6차 교육과정 시기는 1996년 판, 7차 교육과정 시기는 2008년 판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 II. 교육과정의 변천과 국사 교육의 국난극복사관

교육과정은 한 국가의 교육이념이나 교육목적을 국가적인 견지에서 요약·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교육행정기관이 정치 체제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 이념과 사회 시책에 따라 운영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정치적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마련되어왔다.<sup>7)</sup> 따라서 교육과정도 정치 체제의 변화에 따라 현재까지 7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이에 의거하여 교과서제도와 내용도 바뀌었다.

특히 3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국사』 교과서 발행에 국정제가 채택되면서 역사교육의 틀과 내용의 향방이 현실의 '국가권력 또는 그 주도세력'이 생각하는 바에 의해 결정될 소지가 매우 많아졌다. 역사교육이나 교과서가 정치나 이데올로기, 특히 당대의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현대 역사교육에서는 보편적인 가치이다. 그것은 역사교육의 목표가 과거사실에 대한 정치적 가치, 또는 해석 자체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sup>8)</sup> 그러나 『국사』 교과서가 국정제의 틀 안에서 지배계급이나 통치층 등 특정 계급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교과서 서술의 방향과 근거가 되는 교육목표를 분석함으로써 『국사』 교과서가 어떠한 이념과 사관을 가지고 서술되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1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의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목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7) 윤 황, 「정치사회화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43쪽.

8) 이신철, 「국사 교과서 정치도구화의 역사 -이승만·박정희 독재정권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97집, 2006, 177쪽.

《표 1》 1차~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목표 비교

차수(시행시기)	교육목표
1차 교육과정 <sup>9)</sup> (1955~1963)	<p>가. 국사의 학습을 사담(史譚)이나 사실(史實)의 나열적인 기억에서 탈각시켜 국사 각 시대의 구조적 특질과 그 각 시대 호상간의 맥락을 골격으로 하여 과학적인 국사의 체계를 파악하게 한다.</p> <p>나. 국사의 전 발전 과정을 통하여 발달된 우리 민족의 미점(美點)과 우수성을 발굴하여 민족애에 철저히 하는 동시에 또한 그 결점과 후진성을 판별하여 민족적 과업의 달성에 반성을 주게 하여 항시 현재의 위치와 실천의 계기에서 국사를 이해하게 된다.</p> <p>다. 우리 민족이 각 시대에 있어서 세계사적으로 지니는 연관에 유의하여 세계사에 있어서의 국사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아울러 이해케 하여 세계 사조의 진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배양케 한다.</p>
2차 교육과정 <sup>10)</sup> (1963~1974)	<p>가. 국사의 전 발전 과정을 통하여 발달된 우리 민족의 미점과 우수성을 찾아 민족애를 철저히 하는 한편, 우리 민족 과업의 달성을 위하여 올바른 반성을 가지게 하며, 그를 시정하고 민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p> <p>나. 국가 발전에 있어서의 각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생활을 종합적으로 이해시킴으로서 각 시대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고찰시키는 한편, 경제 부흥과 사회 개선에 노력하여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태도와 새 문화의 창조도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 <p>다. 우리 민족의 각 시대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세계사와의 연관에 유의하여 국사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이해시킨다.</p> <p>라. 우리나라의 세계적 지위를 올바르게 이해시킴으로서 반공 사상을 강화하여 세계 평화 건설에 이바지하게 한다.</p>
3차 교육과정 <sup>11)</sup> (1974~1981)	<p>가. 국사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민족사관을 확립시키고 민족적 자부심을 키워서, 민족중흥에 이바지하게 한다.</p> <p>나. 각 시대의 특성을 그 시대의 규범 체제와 문화 현상을 통하여 종합적, 발전적으로 파악시킴으로써, 현재를 바로 알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기른다.</p> <p>다. 국사의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을 인식시켜서, 민족사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하고,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p> <p>라. 전통 문화를 역사적식을 가지고 인식하게 하여서,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바른 자세와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p> <p>마. 전통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게 하여서, 투철한 역사적식을 가지고 당면한 국가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기운다.</p>
4차 교육과정 <sup>12)</sup> (1981~1988)	<p>가. 한국사 발전의 내재적 본질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며, 민족사의 특성을 인식하고 각 시대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한다.</p>

	<p>나. 한국사의 흐름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현재의 관점에서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 <p>다. 우리 민족의 문화성과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새 역사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p>
5차 교육과정 <sup>13)</sup> (1988~1992)	<p>가. 한국사의 흐름을 시대의 변천과 문화 및 사회, 경제면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한다.</p> <p>나. 한국의 전통과 문화의 특질을 세계사적 보편성과 관련시켜 인식하게 한다.</p> <p>다. 역사적 사실의 의미와 각 시대의 특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현재적 관점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른다.</p> <p><b>라. 역사 자료를 조사, 분석, 종합하는 기능과 역사적 방법의 적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b></p> <p>마. 향토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민족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며, 새 역사 창조에 적극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p>
6차 교육과정 <sup>14)</sup> (1992~1997)	<p>가. 한국사의 전개 과정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영역별로 파악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한다.</p> <p>나.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성을 세계사의 보편성과 관련시켜 인식하게 한다.</p> <p><b>다. 역사 자료를 분석, 종합하는 기능과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높이도록 한다.</b></p> <p>라. 향토사가 민족사의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향토사에 대한 관심과 향토 문화에 대한 애호심을 가지게 한다.</p> <p>마. 역사의 발전 과정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새 문화 창조와 자유민주주의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p>
7차 교육과정 <sup>15)</sup> (1997~ )	<p>가. 우리 역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민족 정체성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를 주체적으로 이해한다.</p> <p>나. 우리 역사는 현재의 뿌리이며 미래를 전망하는 단서이기 때문에 이를 발전적으로 파악한다.</p> <p>다. 우리 역사는 우리 민족의 삶의 총체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p>

- 9) 문교부, 1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1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20일에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되었다.
- 10) 문교부, 2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2차 교육과정은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19호로 공포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65년부터 시행 될 예정이었지만, 1964년 학제개편 논의가 제기됨으로써 1968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또 2차 교육과정은 1968년 국민교육헌장 발표 등의 영향으로 인해 1969년 부분 개정되었고(반공 도덕 시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 1972년(한자 교육 재개)과 1973년(사회과에서 국사과 독립, 국사 교과서 국정화) 부분 개정되었다.
- 11) 문교부, 3차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3차 교육과정은 1974년 12월 31일 문교부령 제 350호로 공포되었다.

제 1차 교육과정은 한국전쟁 중에 논의되기 시작하여 1955년에 공포되었다. 이 시기의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해방을 맞이하고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 미군정의 미국식 교육이념을 그대로 답습했던 흐름 속에서 한국전쟁 직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당연히 중요시되었을 법한 민족의 자주성은 강조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당시 자유당 정권이 가지는 민족 정체성의 취약성이 반영된 교과과정 개편이었기 때문이었다.<sup>16)</sup> 자유당 정권의 독재에 대항하여 일어난 4.19혁명으로 인해 민족 주체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민주화의 분위기와 자주적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권이 집권하고 교육개정을 단행하면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군사정권 하에서 개정된 제 2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목표의 특징은 반공이데올로기와 정부가 강력하게 추구한 경제 개발, 통일 민주 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적, 시대적 요청이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라'항에는 반공사상의 강화와 세계 평화 건설이라는 모순된 과제가 함께 제시되었다.

1960년대 말부터 독재체제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박정희가 집권연장을 위해 10월 유신(1972년)을 단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적 있는 교육 및 새로운 국민정신이 제창되어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이라는 명분아래 제 3차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의 강조와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 통합의 논리로 국사교육에서 국난극복사관이 강조되었다. 온 구성원이 일치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한 역사

12) 문교부, 4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4차 교육과정은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24호로 공포되었다.

13) 문교부, 5차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해설』, 제5차 교육과정은 1988년 3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 88-7호로 공포되었다.

14) 교육부, 6차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제6차 교육과정은 1992년 10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2-19호로 공포되었다.

15) 교육부,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사회-』,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고시되었다.

16) 김종철, 「국사 교과과정의 변천과 그 문제점」, 『역사교육』 61집, 역사교육연구회, 1997, 155쪽.

를 강조하는 것이야 말로 1970년대 국내외로부터의 위기에 봉착한 박정희 정권이 민중의 계급적 요구를 저지하고 민족주체성이라는 새로운 통합의 이념을 주입시킬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3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목표의 세부 항목을 보면, ‘민족사관’, ‘민족적 자부심’, ‘민족사에 대한 긍지’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유신체제를 유지·강화시키려는 이념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국사교과를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이념으로 국난극복사관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사관을 주입하는 수단으로 국사교과를 이용함으로써, 국사교육을 강조하고, 정치적 의도에 부합하는 국사교과서를 발행하기 위해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한 것이다.

이렇게 1974년 3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시작된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현행의 7차 교육과정에까지 유지됨으로써, 국정 『국사』 교과서가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sup>17)</sup>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국사교육을 중시하는 것과 국정발행제도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국사를 강조하여 가르치는 것조차도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게 된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후 전두환 정권이 군사독재의 유지를 위한 이념 교육의 강화를 목표로 제 4차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3차 교육과정 시기에 강조되었던 국난극복사관은 4차 교육과정 시기에 절정을 이루다가 5차 교육과정 시기에 이르러 완화되었다.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목표에서 특기할 점은 ‘라’ 항에서 사료 분석이라는 역사학 고유의 연구방법을 통한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국사 교육의 목표로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을 제시한 것은 5차 교육과정부터 제시되어 6차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었으며, 현재의 7차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역사를 주체적, 발전적,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7) 이병희, 「국사교과서 국정제도의 검토」, 『역사교육』 91집, 역사교육연구회, 2004.  
류승렬, 「國史教科書 編纂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역사교육』 76집, 역사교육연구회, 2000.

### Ⅲ. 조선시대 대외관계 단원 구성의 변화

임진왜란에 관한 서술 분석에 앞서 조선시대의 대외관계에 관한 단원이 각 교육과정 차수 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의 서술은 단원 아래에서 이루어지므로 단원의 구성은 서술의 성격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교과서 서술 분석을 하기 전에 단원의 구성을 먼저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나타나는 조선시대 대외관계사 서술 변화 양태를 좀 더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차부터 제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조선시대 대외관계사가 포함된 단원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대외관계에 관한 단원은 정치사의 단원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본래 대외관계사는 자국과 타국 간의 정치·문화·사회·경제 등 여러 면에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조선시대 대외관계사는 주로 정치사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외관계사에 대한 단원도 정치사 안의 소단원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문화적 교류의 내용은 따로 단원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대외관계사 중 책봉조공체제 하에서의 교류와 전쟁사 속에서 조선이 일본 및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문화를 전파한 내용 등으로 기술

18)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제5차와 제6차 교육과정의 단원구성이 큰 차이가 없으므로 하나의 표에 구성하여 설명하겠다. 표에 제시된 것은 제5차 교육과정의 목차이다.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의 조선시대 대외관계와 관련된 목차는 다음과 같다.

-상권-

- IV. 근세 사회의 발달
- 1. 근세 사회로의 전환 (소목차생략)
- 2. 근세의 정치적 변화
  - (1) 정치 체제의 확립
  - (2) 사림의 대두와 붕당 정치
  - (3)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
  - (4) 왜란과 호란

-하권-

- I. 근대 사회의 태동
  - 1. 근대 사회로의 지향
  - 2. 제도의 개편과 정치 변화
    - (1) 통치 체제의 개편
    - (2) 정국의 변화와 탕평책
    - (3) 정치 질서의 파탄
    - (4) 대외 관계의 변화

되어 있다.

제 1차부터 제 6차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는 시대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단원 자체가 조선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분류사 체제로 나뉘어져 있어 조선시대 대외 관계는 정치사라는 큰 틀 안에서 다시 조선시대 정치사 부분에 편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대외관계는 크게 조선 초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1차부터 4차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에서는 조선시대의 대외 관계를 초기와 후기로 나눈 목차를 구성하지 않은 반면, 5차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에서는 초기와 후기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조선시대의 대외관계를 초기와 후기로 나누어 단원을 편성할 경우,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는 명·여진·일본과 동남아시아와의 교류 및 양 난의 극복을 주 내용으로 하고, 조선 후기의 대외 관계는 호란 이후 청과의 관계와 왜란 이후 통신사 파견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특히 제 1·2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임진왜란을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속에서 다루면서 대외관계의 흐름 속에서 왜란과 호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 3차 교육과정 교과서부터는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에서 왜란과 호란을 분리하여 별도의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것은 국난극복사관을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왜란과 호란’을 부각시키고자 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본 글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할 임진왜란 관련 소단원을 다음 《표 3》에서 살펴보겠다.

《표 3》의 교육과정 차수별 임진왜란 관련 소단원의 목차를 보면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단원 구성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제 1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임진왜란 관련 내용이 중단원 <1.지배층의 분열과 일본 및 만주의 침입>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사립정치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을 지배층의 분열과 당쟁으로 인한 폐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즉, 전쟁의 원인을 지배층의 분열과 당쟁에 의한 것으로 떠넘김으로써 '당쟁만 일삼는 무능한 지배층'이 전쟁을 자초했다는 인상을 주고, 당쟁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당쟁이 곧 분열'이라는 식민주의사관의 당파성론을 극복하지 못한 단원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3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도 나타난다.

3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도 임진왜란 관련 내용을 중단원 <3.양반 문벌 사회의 형성과 민족의 시련> 안의 <(2)양반 계급의 분열과 두 차례의 국난>의 한 부분으로 서술함으로써 식민주의사관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한편, 중단원 제목에 '민족의 시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3차 교육과정 교과서 발행 시 국사 교과서가 민족주의사관을 본격적으로 강조하며 그에 역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임진왜란 서술상의 특이점은 전쟁의 명칭 문제에 있어서 '임진왜란'이라는 용어 대신 '7년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sup>19)</sup> 1592년 일본이 침입한 전쟁을 임진왜란이라 부르는 것은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임진년의 왜적 또는 임진년의 변란이라 하다가 임진왜란으로 정착된 것이다.<sup>20)</sup>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전쟁의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던 '임진왜란'을 이 시기에 돌연 '7년 전쟁'으로 바꾸어 교과서에

19) 문교부가 초중고교 국정교과서에서 임진왜란을 '7년 전쟁'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서술한 것과 관련된 신문기사, 『조선일보』 1974년 3월 2일자.

20) 오종록, 「여러 얼굴의 전쟁, 임진왜란」, 『내일을 여는 역사』 제 1호, 2000, 81쪽.

삽입하였다. 그러나 일본을 칭할 때 정식 국호 대신 ‘왜인’, ‘왜’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은연중에 일본을 낮추어 보고 있다. 객관적인 서술을 지향해야 하는 교과서에서 타 국가를 상대적으로 열등한 민족으로 보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교과서에서는 ‘일본’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명칭의 변화가 성리학적 역사인식의 극복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편, 2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임진왜란 관련 내용을 <3.양반의 다툼과 정치의 문란>단원에 넣지 않고, <4.초기의 대외관계와 왜란 및 호란>의 소목차로 구성하여 대외관계사 속에서 왜란과 호란을 서술함으로써, 앞서 1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임진왜란 관련 소단원 구성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2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이순신 관련 내용이 <(4)이순신의 승리>, <(5)정유재란과 이순신의 재승리>등 2개의 소단원으로 독립되어 유독 이순신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전쟁사에서 이순신이라는 민족적 영웅의 역할을 매우 강조한 것이다. 이순신을 민족적 영웅으로 숭모하며 떠받드는 인식은 3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렇게 임진왜란에서 이순신을 강조한 단원 구성은 4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부터는 나타나지 않는다. 4차 교육과정 교과서는 상권에서는 조선전기까지, 하권에서는 조선후기부터 서술하여 상·하 2권으로 나누어 편찬되어 교과서 분량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단원의 목차도 세분되었는데, 특기할 점은 ‘왜란과 호란’에 관한 내용이 중단원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왜란과 호란을 강조하고, 이러한 외침을 우리 민족이 훌륭히 극복해내었다는 ‘국난극복사’를 강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중단원으로 설정되었던 ‘왜란과 호란’은 5

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부터 다시 소단원으로 편제되어 이러한 구성이 7차 교육과정 교과서까지 계속 적용되었다.

또 다른 큰 변화는 단원 구성방식의 변화이다. 4차 교육과정 교과서까지는 왕조별로 단원을 나누어 구성하였으나, 5차 교육과정 교과서부터는 고대·중세·근세·근대의 시기구분을 적용하여 단원을 편성함으로써 국사 교과서 서술 형태에 있어서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임진왜란 관련 단원을 대단원 <IV.근세 사회의 발전>안에 편제하여 근세 사회의 발전과정이라는 넓은 시각에서 전쟁의 원인·경과·영향을 살펴보려는 노력을 보였다. 한편 6차 교육과정 교과서는 5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단원과 큰 차이 없이 구성되었다.

분류사 체제를 채택한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중단원 <3.근세의 정치>안의 소단원에 <(6)양 난의 극복> 단원을 설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소단원의 용어 문제에 있어서 임진왜란에 대해 여전히 '국난극복'을 강조하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 IV. 임진왜란 관련 서술 분석

이 장에서는 1차부터 7차까지의 교육과정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고등학교 국사』의 임진왜란 관련 서술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시기는 1~2차 교육과정기이다. 이 시기까지의 연구 성과는 일제 통치기간에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식민사관이 개입되기 쉬운 조건에서 교과서 편찬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식민사관 극복이 필요한 단계로 보고 한 시기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는 3~4차 교육과정기로 유신체제기의 국정화 조치와 연속된 군사정권에 의해 국난극복사관이 강조된 시기로 묶어서 살펴보고, 5~7차 교육과정기는 선거로 인해 집권한 정부가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난극복사관이 약화된 시기로 나누고,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에서부터 영향까지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교과서 서술 변화를 살펴보겠다.

### 1.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

임진왜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원인을 조선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속에서도 다각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원인에는 당시의 국내외 정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그 결과는 우리 역사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의 역사 전개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9세기에는 임진왜란과 유사한 양상으로 다시 일본의 침입이 일어난 바 있다.<sup>21)</sup>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사』 교과서에는 임진

왜란의 원인에 대한 학계의 연구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먼저, 제 1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임진왜란이 서술되어 있는 단원을 살펴보면, <Ⅷ. 사회의 동요와 새 학풍의 대두 → 1. 지배층의 분열과 일본 및 만주의 침입 → 당쟁의 시작, 농촌 사회의 쇠잔, 일본의 침입, 임진란 중에 사용된 무기, 전란의 영향, 북방문제와 호란>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목차의 구성은 임진왜란의 원인을 지배층의 분열에 의한 당쟁으로 농촌 사회가 피폐해지자 이를 틈타 일본이 침입하였다는 식의 구성이어서 임진왜란의 원인을 당쟁만 일삼았던 조선 지배층의 무능으로 돌리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것은 당쟁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당쟁만 일삼은 조선의 지배층으로 인해 외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한 단원구성이다. 교과서의 해당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일본의 침입>

그 동안 내이포(乃而浦)에 와 있던 왜인의 폭동과 무장한 왜선의 침입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으며, 이황, 이이 같은 이는 왜인과 호인(胡人)의 동향에 근심하여 국방 강화를 역설하였건만, 오히려 이를 배척하고 말았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대륙 정복의 기회만 노리고 있었음에도 하등의 준비가 없이 있다가, 임진년(壬辰年' 宣祖 25년, 1592)에 침입을 받았던 것이다.<sup>21)</sup>

이렇게 1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에서는 임진왜란 발발 원인을 대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서술을 하지 않고, 조선 측 요인만 고려하여 조선의 지배층이 외침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했던 것만을 비

21) 오종록, 앞의 글, 80쪽.

22) 제1차 교육과정, 이병도, 『국사』, 일조각, 1959, 134쪽.

판하고 있다. 이 시기의 한국사 연구 성과는 식민주의사학자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교과서 편찬 시 식민주의사관의 영향을 받기 쉬웠던 것이 사실이나, 이를 미처 극복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이다.

제 2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임진왜란 관련 소단원을 대단원 <4. 초기의 대외 관계와 왜란 및 호란>안에 편제함으로써 1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대외적 측면을 고려한 서술 형태를 보였다.<sup>23)</sup> 여기에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불평세력을 해외로 발산 시키기 위하여’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는 서술을 하였다. 전쟁의 원인을 조선사회 내부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조선 지배층의 분열에서 구하였던 1차 교육과정 교과서보다 발전된 형태의 서술이라 할 수 있으나 이것 또한 정확한 서술은 아니다. 단순히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적 측면에서 전쟁의 원인을 살필 것이 아니라 당시 국제 정세와 조선의 정세를 모두 살펴야 옳은 서술이 될 것이다.

제 3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다시 1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단원 구성으로 돌아가 임진왜란을 조선 초기 대외관계의 연장선상에서 기술하지 않고, 대단원 <3. 양반 문벌 사회의 형성과 민족의 시련>안의 소단원으로 편제하였다.<sup>24)</sup> 이것은 1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나타났던 식민

---

23) <3. 임진왜란의 발단> 1585년(선조 18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1536~1598)가 나타나 일본 국내를 통일하고, 국내의 불평 세력을 해외로 발산시키기 위하여 명나라를 친다는 구실로 조선에 대하여 길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조선에서 그 요구를 거절하자, 그는 코니시 유키나가(?~1600)·카토오 키요마사(1561~1611) 등 9명의 장수에게 15만 군사를 주어 1592년(선조 25)년에 침입해 왔다. 이 때 조선은 5위의 병제가 붕괴하여 군사적인 공백기였다. 이보다 앞서 이이가 군대 양성을 주장한 일이 있었으나, 집권층의 분열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 신석호,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광명출판사, 1971, 157~158쪽.

24) <일본과의 7년 전쟁> 사화와 당쟁으로 민생이 파폐되고 국방이 약화되었던 16세기 말에 일본에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나타나 1세기 간에 걸친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여 전국을 통일한 다음, 그 여세를 몰아 조선에 침입하게 되었다. 조선의 무역 통제로 선진 문물과 식량의 수입에 곤란을 느껴오던 그들은 조선의 정치가 어지럽고 국방이 허약한 것을 틈타 조총으로 무장된 대군을 파견하여 쳐들어왔다. (중략) 일본의 조선 침략은 한 사람의 무모한 영웅심에서 나온 불장난이었으나, 그 영향은 동양의 정세를 뒤바꿀 정도로 컸다. 제3차 교육과정,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문교부, 1974, 137쪽.

사관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① 조선의 무역 통제로 선진 문물과 식량의 수입에 곤란을 느꼈다는 점, ②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적 영웅심을 전쟁의 발발 원인으로 서술함으로써 1·2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서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임진왜란 관련 분량이 크게 늘어 하나의 중단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임진왜란의 원인에 대한 서술 분량도 증가하여 별도의 소주제를 정하여 기술하였는데, 관련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 (1) 왜란

##### <왜란 전의 대일 관계>

이에 토요토미는 그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불평 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쏠리게 하고 아울러 자신의 정복욕을 만족시키고자, 우리나라와 명에 대한 대대적인 침략을 준비하였다. 그는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 조선의 산천과 정치 정세에 대한 정보를 세밀하게 수집하는 한편, 서양의 총포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무기로 군사들을 무장시켰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국제 정세에 어두웠고, 국론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데다가, 외세의 침략에 대한 유비무환의 태세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sup>25)</sup>

여기서는 전쟁의 원인을 좀 더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①토요토미가 그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② 일본 국내 불평 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쏠리게 하고, ③ 토요토미 자신의 정복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대대적인 침략을 준비하였다’고 서술하였고, 이에 대해

25) 제4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문교부, 1981, 162쪽.

우리나라는 전쟁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론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서술한 부분은 4차 교육과정기의 기본 교육 목표가 '국민 정신 교육의 체계화'였다는 점과 관련지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편, 5차와 6차 교육과정 교과서는 4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크게 수정하지 않고 답습하였고, 현행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도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에 대한 서술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본은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한 뒤 철저한 준비 끝에 20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략해왔다(1592)' 라고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교과서에서 전쟁사 부분이 축소되면서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에 대한 부분이 생략되었는데, 이는 임진왜란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으로는 전쟁이 도요토미의 개인적인 욕망에 의한 도발이라는 것 보다는 체계적으로 전쟁을 계획했다는 것, 또 동아시아 책봉 체제가 무너지면서 당시의 새로운 국제 외교 질서에 대한 대응으로서 조선 침략을 일으켰다는 것, 그리고 도요토미의 영토 확장설로 도요토미 정권은 통일을 완수하면서 일본 국내에 생긴 대외 통상의 발전과 정권 확립을 위해서 영토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조선 침략을 기도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임진왜란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외교정책, 경제적 요인, 국방력 등이 복잡하게 얽혀 일어난 것이므로 임진왜란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것을 교과서에 반영하여 전쟁사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 2. 수군의 승리

임진왜란에서 일본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패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일본 수군의 패배'이다. 그러므로 조선 수군의 활약과 승리는 교과서의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서술에서 큰 비중을 두고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 서술에서의 문제점을 적잖이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임진왜란 해전사에 관한 교과서 서술이 조선 수군의 승전 과정에 치중하여 서술되어있다는 점이다. 조선 수군의 승전 과정만이 아니라 조선 수군이 해상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 있는가도 밝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이순신이라는 민족적 영웅 한 사람의 탁월한 개인적인 능력 때문이었다는 식의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문제점이다. 조선 수군의 장수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큰 공을 세운 이순신이 임진왜란 해전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의심할 여지는 없다. 다만 그의 휘하에서 악전고투를 계속했던 수많은 수군 장졸들의 공과 희생, 그리고 수군의 전쟁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전의 군사들 못지않게 고통을 치렀던 연해지역 민중들의 희생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1차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에서는 대체로 국가주의적인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영웅사관을 벗어나지 못한 서술 방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1차부터 4차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에서 모두 나타나는데,<sup>26)</sup> 특히 3차와 4차 교

26) <일본의 침입> 이러한 때에 이 순신(李舜臣)이 왜의 해군과 대전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그의 탁월한 지휘력과 교묘한 전술, 그리고 그가 만든 거북선(龜船)의 위력을 발휘하여 적을 섬멸하였으며(중략), 제1차 교육과정, 앞의 책, 134~135쪽.

<4. 이순신의 승리> 육전에 있어서 아군은 도처에서 패배하여 왜군이 거의 전국을 휩쓸게 되었지만, 해전에 있어서는 전라 좌수사 이 순신(1545~1598)장군에 의하여 아군이 일방적 승리를 거두었다. 이 순신은 그가 창제한 거북선을 이용하여, 투철한 애국심과 기민한 작전으로 옥포·사천·당포·당항포·한산도·안골포 등지에서 일본 수군을 거의 전멸시키고, 제해권을 장악하였는데, 특히 한산도 해전에서는 적함 70여척을 무찔렀다. (중략) 이 순신은 실로 조국을 위기 직

육과정 교과서의 서술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일본과의 7년 전쟁>

조선 수군의 승리는 세계 해전 사상 유례가 드문 것으로서, 이것은 물론 수군 총사령관 이순신의 투철한 애국심과 뛰어난 전략, 그리고 용의주도한 사전 준비에 힘입은 바 크나, 또한 일찍부터 조선 기술이 발달하여 거북선이라 불리는 장갑선을 만들고, 대완구 등 위력적인 함포를 가진 데에도 승리의 요인이 있었다.<sup>27)</sup>

먼저 위의 3차 교육과정 교과서 서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진왜란 전개 과정에서의 수군의 승리를 이순신의 ‘투철한 애국심’, ‘뛰어난 전략’에 의한 것으로 이순신의 민족적 영웅으로서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여 서술하였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4차 교과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수군의 승리>

이순신 함대의 이러한 승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여 성취된 것이었다.

첫째는, 이순신 장군의 투철한 애국심이 큰 요인이 되었다. 그는 항상,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교훈을 가지고 전투에 나섰다. 지도자의 이와 같은 불퇴전의 자세는 그의 너그러운 인품과 더불어 부하 장병들의 사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

둘째는, 이순신의 전술, 전략의 공이 컸다. 그는 거짓 후퇴하는 작전으로 적

---

전에서 구해낸 영웅이었으며, 그는 이 공으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 한산도에 통영을 설치하고 수군을 총지휘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 앞의 책, 158~159쪽. 2차 교과서에서는 수군의 승리를 소목차 <4. 이순신의 승리>에서 서술하고 있다.

27) 제3차 교육과정, 앞의 책, 137쪽.

들을 바다로 유인한 다음에 갑자기 뱃머리를 돌려서 반격하는 전법을 썼다. 특히, 한산도 싸움에서는 유명한 학 날개 진(鶴翼陣)을 펴므로써 적을 섬멸하였다.

셋째는, 사천 전투 때부터 모습을 나타낸 거북선은 종래의 그것을 개량한 장갑선으로서, 적함에 부딪쳐 부수기도 하고, 포를 쏘아 적함을 격침시키기도 하였다.<sup>28)</sup>

여기서는 이순신 함대의 승리 요인을 '① 이순신의 투철한 애국심, ② 너그러운 인품, ③ 이순신의 뛰어난 전술과 전략, ④ 거북선의 활약' 등이 전의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이순신 개인의 활약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이렇게 민족적 영웅으로서 이순신을 숭모하는 서술 형태는 5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부터 개선되어 감정적인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좀 더 객관적인 역사 서술을 지향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군의 승리>

이 때, 전라도 해안 경비의 책임을 맡은 이는 이순신이었다. 그는 1년 전에 전라 좌수사에 부임한 이래, 왜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거북선을 만들고, 전함과 무기를 정비하여 수군을 훈련시키고 군량을 저장해 두었다.

(중략) 이러한 승리로 우리 수군은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고,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방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왜군의 작전을 좌절시키는 데 성공하였다.<sup>29)</sup>

위에서 본 바와 같이 5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이순신의 뛰어난 개인적 능력에 대한 서술을 하지 않고, 왜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철저한

28) 제4차 교육과정, 앞의 책, 165쪽.

29) 제5차 교육과정, 앞의 책, 155~156쪽.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서술하여, 조선의 수군이 일본 수군과 비교하여 우세를 점할 수 있었던 이유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6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거쳐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이르기 까지 계속되고 있다.<sup>30)</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순신을 중심으로 하여 임진왜란사를 서술하는 경향은 3차와 4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현저하게 나타났으나, 5차 교육과정 교과서부터 줄어들어 현재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특별히 이순신을 강조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국난극복사의 비중이 점차 약화되면서 전쟁사에 관한 분량도 줄어들게 되어 그 결과 서술의 추상성이 차츰 높아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즉, 수군의 해전에서의 승리 과정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서술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조선 수군의 해전 승리 과정이 아니라 조선의 수군이 왜 승리할 수 있었는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역사적 사고력을 갖는 것이다. 조선 수군의 승리 요인을 고찰할 때에는 이순신의 탁월한 지휘 능력과 전략·전술을 비롯하여 당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에 비해 편제·선박·화력에 있어서 모두 우월했다는 점,<sup>31)</sup> 서남해 해상의 많은 해안 굴곡과 조수(潮水) 등을 교묘히 활용할 줄 알았다는 점, 연해지역 전역이 수군 관할구역으로 묶여 평소에 바다와 선박에 익숙한 주민들이 현지의 수군으로 편성<sup>32)</sup>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종래 해전에

30) <수군과 의병의 승리> 왜군은 육군이 북상함에 따라 수군이 남해와 황해를 돌아 물자를 조달하면서 육군과 합세하려 하였다. 그러나 진라도 지역에서 이순신이 이끈 수군은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둔 이후 남해안 여러 곳에서 연승을 거두어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이로써 곡창지대인 진라도 지방을 지키고, 왜군의 침략 작전을 좌절시킬 수 있었다. 제7차 교육과정, 앞의 책, 90쪽.

<진란의 극복과 영향> 3년여에 걸친 명과 일본 사이의 휴전 회담이 결렬되자, 왜군이 다시 침입해 왔다(1597). 이를 정유재란이라 한다. 그러나 조·명 연합군이 왜군을 직산에서 격퇴하고 이순신이 적선을 명량에서 대파하자, 왜군은 남해안 일대로 다시 후퇴하였다.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본국으로 철수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앞의 책, 91쪽.

31)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9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국사편찬위원회, 1995, 65쪽.

32) 국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58쪽.

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온 거북선의 위력은 사실과 달랐다.<sup>33)</sup> 만일 거북선의 위력이 대단하였다면 정유재란 이전 휴전기에 단 한 척이라도 더 건조되었어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으며, 명량해전에서는 보이지도 않았던 사실만으로도 거북선의 위력이 지나치게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전의 승패에 영향을 준 구체적인 요인들이 보다 자세히 서술되어야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에서 조선 수군의 승리의 의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분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분석들을 모두 교과서에 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에 맞추어 중학교에서 한국사 중 주요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방식을 더 강화함으로써<sup>34)</sup> 고등학교 교과서의 추상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3. 의병의 승리

수군의 승리와 함께 임진왜란에서 조선이 일본을 좌절시킬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의병의 활약이다. 의병은 민족의 국난극복을 강조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국가주의적 역사인식이 가장 단적으로 드

33) 초기 해전에 동원된 거북선은 2척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裝甲船이라는 점에서 射夫들이 전투하는 데에 불편하였으며 판옥선에 탑승한 군사들에 비하여 사상자도 많았다. 조선 측의 戰船監造軍官이었던 羅大用이 “거북선은 射夫가 활동하는 데에도 불편하였다”(《宣祖實錄》 권 206, 선조 39년 12월 무자.)라고 증언한 것과, 이순신의 장계 가운데 거북선이 최초로 동원된 2차 출전 때부터 4차 출전 때까지 진라좌수군의 사상자는 모두 165명이었는데 그 중에 두 척의 거북선에 탑승한 사상자가 24명이었다. 이것은 판옥선 23척의 사상자 통계 141명과 비교해 볼 때 거북선에 탑승한 군사들의 피해가 훨씬 컸음을 말해 준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67쪽.

34) 오종록,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이순신 관련 서술의 문제점과 제언」, 『한국사학보』 제 16호, 2004, 218쪽.

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의병활동이 민족주의적 애국심에서보다는 향토를 지키려는 의식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 내용도 구체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했다는 것은 일찍부터 밝혀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이유는 오랜 동안 군사정권 아래 임진왜란이 국난극복사의 주요주제로 다루어졌던 것과 관계가 있다.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해 동족인 북한을 가장 큰 적대세력으로 간주한 군사정권은 남한사회 구성원의 일치단결을 호소하는 수단으로 임진왜란의 의병을 이용했던 것이다.<sup>35)</sup>

1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비교적 평이하게 서술<sup>36)</sup>되어 있으나, 의병의 성격에 관한 서술이 누락되어 있는 반면, 2차 교육과정 교과서<sup>37)</sup> 이후에는 의병의 성격과 관련하여 자발성, 애국심 등을 강조한 서술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3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서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본과의 7년 전쟁>

유생과 관리들은 유교의 충군 애국 사상에서, 승려는 불교의 호국 사상에서, 그리고 농민들은 순수한 애국심에서 쫓기하여 서로 혼연 일체가 되어 싸웠는데, 그들의 뛰어난 게릴라 전술은 그 때마다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sup>38)</sup>

3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충군 애국 사상’, ‘순수한 애국심’ 등의

35) 오종록, 「여러 얼굴의 전쟁, 임진왜란」, 『내일을 여는 역사』 제1호, 2000, 83~84쪽.

36) <일본의 침입> 이 동안 민간에서는 의병이 봉기(蜂起)하여 적과 싸웠으니, 경상도 의령(宜寧)의 곽 재우(郭再祐), 호남의 고 경명(高敬命), 김 천일(金千鎰), 함경도 지방의 정 문부(鄭文孚) 등은 다 유명한 의병의 지휘자였거니와, 승려들도 쫓기하여 서산 대사(西山大師)와 그의 제자 사명 대사(四溟大師)는 승군(僧軍)을 조직하여 전열에 뛰어들었다. 제1차 교육과정, 앞의 책, 135쪽.

37) <5. 의병의 봉기와 명군의 내원> (중략) 각지에서 구국 일념에 불타는 의병이 일어나 도처에서 왜군을 무찔렀다. 제2차 교육과정, 앞의 책, 159쪽.

38) 제3차 교육과정, 앞의 책, 138쪽.

국가주의적 가치관이 개입되어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되었다. 4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서술도 이와 마찬가지로의 사정이다.

#### <의병의 항쟁>

전국 각지에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부대를 조직하여 향토방위에 일어난 것이다. 이 자발적인 무장 부대들은 나라를 위한 충의를 내걸고 싸웠기 때문에 의병(義兵)이라고 부른다. 의병은 농민이 주축을 이루었으나, 그들을 조직하고 지도한 것은 전직 관리, 사림 학자, 그리고 승려들이었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신앙과 학문도 같지 않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적 정열에는 추호의 차이도 없었다. (중략) 의병들은 향토지리에 익숙하고, 또 향토 조건에 알맞은 무기와 전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군과의 전투에서 작은 희생으로써도 큰 전과를 거둘 수 있었다. (중략) 뛰어난 기동력과 매복, 기습 작전으로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광 재우, 조 헌 등 크고 작은 의병부대의 활약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며, 의병들의 빛나는 전과들은 수군의 승리와 더불어 국민들 가슴 속에 자신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sup>39)</sup>

위에서 보듯이 4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서술은 1차부터 3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비교하여 교과서 분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의병의 항쟁 관련 서술의 양도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의병이라는 명칭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의병부대의 조직과 구성, 의병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및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의병의 성격 변화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한 충의’, ‘애국적 정열’, ‘국민들 가슴 속에 자신과 희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의병을 민족 단결의 힘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민족 단결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것은 4차 교육과정 시기의 기본 교육 목표였던

39) 제4차 교육과정, 앞의 책, 166쪽.

‘국민 정신 교육 강화’와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총동원체제의 이념 등을 은연중에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5차와 6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서술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국난극복사의 비중이 약화되면서 임진왜란기의 의병 관련 서술 분량도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비교하여 매우 감소하여, 서술 내용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 <수군과 의병의 승리>

한편, 육지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의병이 향토 지리에 밝은 이점을 활용하면서 그에 알맞은 전술을 구사하여 적은 병력으로도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전란이 장기화되면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의병 부대는 관군에 편입되어 조직화되었고, 관군의 전투 능력도 한층 강화되었다.<sup>40)</sup>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의병 부대가 일어난 원인을 ‘순수한 애국심<sup>41)</sup>’, ‘애국적 정열<sup>42)</sup>’, ‘나라를 위한 충의<sup>43)</sup>’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의병의 성격을 국가주의적 민족 단결의 힘으로 규정하면서 서술하고 있는 반면,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식의 서술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의병의 성격과 의병이 왜 일어났는지에 관한 내용이 아예 누락되어 있다. 의병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져야 초기의 임진왜란에서 의병의 성격과 역할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내용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의병을 모집했던 의병장은 대부분 양반 중에서도 문반출신이었고, 각 지방에서 사회의 상층부에 있으면서 정신적인 지도층이었으며, 경제적

40) 제7차 교육과정, 앞의 책, 90쪽.

41) 제3차 교육과정, 앞의 책, 129쪽.

42) 제4차 교육과정, 앞의 책, 166쪽.

43) 제5차 교육과정, 앞의 책, 156쪽.

으로는 중·소지주 층으로 농민과는 토지를 매개로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있었다. 일본군의 향토 침입은 바로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토대를 무너뜨리는 위협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병장들이 의병을 모집한 것이었다. 한편, 일반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관권에 의한 강제 징집으로 무능한 장군의 지휘를 받아 전국의 전선을 전전하며 싸우기 보다는 평소 잘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의병장의 휘하에서 싸우기를 원했다. 또한 향토 주변에서 부모와 처자를 보호하기에는 관군보다 의병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의 징집 명령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일본군에게 침탈을 당하자 자기 가족과 재산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응전하였던 것이다.<sup>44)</sup>

그리고 의병의 활약이 임진왜란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전쟁 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부터 의병의 역할은 이전에 비해 축소되었고, 성격 또한 변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의병은 전쟁이 장기화되자 점차 변질되어 명목뿐인 의병도 있었고, 국가의 통제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이고 자의적인 행동으로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생겨났다. 또한 관군과 명군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되자 의병의 존재가치는 더욱 떨어졌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각 지방의 의병을 관군에서 흡수하거나 관군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으며, 전쟁 후기에 이를수록 의병의 질적 저하가 가속화되어 의병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다.<sup>45)</sup>

이러한 의병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교과서 지면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서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도움글의 형식을 빌어서라도 의병의 성격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44)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40쪽.

45)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53~54쪽.

#### 4. 명의 참전과 강화회담

임진왜란은 명의 참전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3국이 모두 전쟁에 휘말림으로써 동북아시아 차원의 세계대전으로 비화된 전쟁이었다. 명이 임진왜란에 참전한 까닭은 명 자체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sup>46)</sup> 명은 일본군에 의해 수세에 몰린 조선 조정의 원병 파견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조선에 참전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임진왜란 참전은 위기에 처한 조선을 원조한다는 목적 보다는 조선이 일본 수중에 떨어질 경우 요동이 위험해지고, 궁극에는 자국의 심장부인 북경이 일본군의 위협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단행된 자위적(自衛的) 차원의 조치였다. 즉, 명의 참전은 외면상 조선 측의 청원에 의한 구원의 성격을 띤 것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조선의 힘을 이용하여 명을 지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또한 명군의 조선 참전과 장기 주둔은 정치적으로는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불러오는 등 주권을 침해<sup>47)</sup>하였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조선 민중에게 극심한 민폐를 끼침으로써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남겼다.<sup>48)</sup>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내용은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임진왜란의 국제전으로서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교과서의 명의 참전과 관련된 서술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46) 한명기, 「임진왜란과 명나라 군대」, 『역사비평』 54호, 역사비평사, 2001, 376~377쪽.

47) 전쟁이 시작되자 세자에 책봉되어 분조, 즉 제 2의 조정을 맡아 전쟁 수행을 이끌었던 광해군에 대해 그 동안의 관례를 깨고 그가 두 번째 왕자라는 이유로 번번이 책봉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오종록, 「선조-광해군 때의 정치판」, 『내일을 여는 역사』 제 14호, 서해문집, 2003, 57쪽.

48) 조선 백성들 사이에서는 “명군은 참빗, 일본군은 얼레빗”이라는 속요까지 돌게 되었다. 명군을 ‘천병’, ‘구원군’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의 한편에서는 민폐에 시달리는 하층민들이 명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임진왜란 당시 명군과의 관계를 형상화한 구비설화 가운데 이여송 등에 대한 이미지가 극히 부정적으로 묘사된 작품이 많았다는 것은 그를 반증하는 것이다. 한명기, 위의 글, 386쪽.

1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명이 참전하게 된 계기에 대한 서술을 하지 않고 의병의 활약에 대한 내용 다음에 바로 명나라가 사신을 보내 일본군과 회의를 진행시켜 전쟁을 미루게 하였다는 내용이 서술되어있다.<sup>49)</sup> 이것은 ‘왜 명이 참전하였는가?’ 와 ‘왜 명이 강화 협상을 추진하였는가?’, ‘명의 참전이 조선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지식을 얻을 수 없는 서술이다.

3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명군의 참전이 조선에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며, 강화 회의는 일본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서술하였다.<sup>50)</sup> 그러나 이것은 앞서 보았듯이 사실과 다른 서술이다.

4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명의 입장에서 참전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명의 참전 원인을 ‘일본이 정명가도를 내세워 명을 침략할 것을 공언했기 때문’으로 기술함으로써<sup>51)</sup> 표면적으로만 이를 분석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명의 참전 원인은 결국 명 자체의 안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서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4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소략하였던 명군의 참전 원인에 관한 서술은 5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sup>52)</sup> 6차 교육과정 교과서도 5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서술 방식을 수정 없이 그대로 따르고

---

49) <일본의 침입> 명나라는 이때에 심 유경(沈惟敬)이란 설객(說客)을 보내어 평양에서 일본군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회의를 진행시켜 전쟁을 미루게 하고, 이 여송(李如松)으로 하여금 대군을 보내어 평양을 탈환하매(중략), 제1차 교육과정, 앞의 책, 135쪽.

50) <일본과의 7년 전쟁> 한편, 조선의 요청으로 명나라 원병이 아군과 합세하니, 일본군은 더욱 곤경에 몰려 남방으로 퇴각하다가 행주산성에서 권 울 장군에게 대패 당하였다. 일부는 본국으로 철수하는 한편, 명과 회의를 진행시킴으로써 전투는 한때 소강상태를 이루었다. 제3차 교육과정, 앞의 책, 138쪽.

51) <왜군의 패퇴> (중략) 이 여송이 거느린 5만 명의 명나라 지원군이 도착하여 아군과 합세하였다. 일본은 전쟁 초기부터 정명가도(征明假道)를 내세워 명을 침략할 것을 공언했기 때문에, 명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쟁을 주시하다가 원병을 파견한 것이었다. 제4차 교육과정, 앞의 책, 167쪽.

52) <전세의 전환과 왜군의 패퇴> (중략) 명의 지원군이 도착하여 조선군과 합세하였다. (중략) 이에 왜군은, 조선군의 공격을 늦추고, 자신들의 전열을 다시 가다듬기 위하여 휴전을 제의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 앞의 책, 157쪽.

있으며,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sup>53)</sup> 이와 같이 강화 협상을 왜군의 필요와 요청에 의한 것으로 서술하고, 이에 대한 조선의 입장은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자칫 수동적인 조선의 이미지를 조장할 우려가 엿보인다. 그러나 조선은 끝까지 명나라와 일본의 강화회담을 반대하였고, 다만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을 따름이었다. 명나라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전비부담과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에 나섰고, 일본군은 연이은 수군의 패전 그리고 조선의 관군과 의병의 공격을 받아 보급에 위협이 가중되어 전선을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강화회담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사정으로 인해 전쟁 당사자인 조선을 제외하고 강화회담이 진전되었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자칫 조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서술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겠다.

## 5. 임진왜란의 영향

임진왜란은 일본의 침략에 의해 조선과 일본 사이의 전쟁으로 시작되었지만 명군의 참전을 불러왔다. 또 당시 명의 간접지배 아래 놓여있던 건주여진의 누르하치 역시 조선에 원군 파견을 제의하는 등 이 전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요컨대 명의 참전을 통해 동북아시아 3국이 모두 전쟁에 휘말림으로써 임진왜란은 바야흐로 동북아시아 차원의 세계대전으로 비화되었다.<sup>54)</sup> 그러므로 임진왜란의 영향을 고찰할 때에

53) <전란의 극복과 영향> 아울러 명의 원군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조·명 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하였으며, 관군과 백성이 합심하여 해주산성 등에서 적의 대규모 공격을 물리쳤다. 이후 명과 경상도 해안으로 밀려난 왜군 사이에 휴전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조선도 전열을 정비하여 왜군의 완전 축출을 준비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앞의 책, 91쪽.

54) 한명기, 앞의 글, 376쪽.

는 이러한 국제전으로서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시아 정세에 끼친 영향과 국내에 끼친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정세로는 전후 명·여진·일본을 모두 살펴야 할 것이고, 국내에 끼친 영향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사상 면을 모두 고려해서 살펴야 할 것이다.

임진왜란은 조선왕조의 정치체제와 사회경제적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대사건이었으며,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연관된 국제전이었으므로 그 영향 또한 막대하였다. 그러나 교과서 서술 분량에 있어서 전쟁의 경과에 할애한 분량과 비교하였을 때 전쟁의 영향에 관한 부분이 현행 7차 교육과정으로 올수록 줄고 있는 형편이다.

특이한 점은 2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임진왜란의 영향을 다룬 내용을 서술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임진왜란의 영향 보다 전쟁의 전개 과정 서술에 더 큰 의의를 두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를 제외한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전후 국내의 변화로 인명의 살상과 기근, 질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 경작지 면적의 감소로 인한 식량 부족과 국가 재정의 궁핍, 일본군의 약탈과 방화로 인한 문화재 소실 등을 서술하고 있으며, 국외의 변화로 명의 쇠퇴와 여진족의 성장, 일본의 성리학파 도자기 문화 발달 등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이외에 조선시대의 분수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약 7년에 걸친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었음에도 조선왕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임진왜란은 조선왕조에 커다란 위기였던 한편으로 그 위기를 넘김으로써 양반 사대부의 지배를 확고히 하는 결과를 낳은 전쟁이었다. 임진왜란은 강력한 외부의 적이 침입해 옴으로써 위기국면에까지 치달은 사회내부의 문제를 일단 덮어두었다가 전쟁 과정에서 강화된 지배층의 입

지를 바탕으로 지배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족들은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명분 아래 의병을 일으키고 실제로는 그 의병을 스스로를 보호하는 군대로 사용하고, 이를 토대로 향촌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해나갔다.<sup>55)</sup>

조선의 지배층은 이미 평양전투 승리의 소식을 접한 때부터 명의 원조를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再造之恩)'로서 인식<sup>56)</sup>하였는데,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이 같은 인식이 더욱 확산되었다. 명의 참전과 조선에 대한 원조를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은혜'로 여겨 명을 숭양하는 분위기, 즉 숭명존화사상(崇明尊華思想)이 깊어져 간 것이었다. 선조와 조정 신료들이 '재조지은'을 강조했던 배경에는 전쟁을 불러온 책임 소재, 전쟁을 끝낼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도 미묘한 정치적 의미가 자리 잡고 있었다.<sup>57)</sup> '재조지은'을 강조하면 할수록 권위가 실추되었던 선조나 신료들이 국난 극복의 공로를 상당 부분 명의 참전 덕택으로 돌리고, 나아가 그 명군을 불러온 주체가 자신들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전쟁 초반의 연이은 패배와 파천 때문에 실추된 권위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55) 오종록, 「여러 얼굴의 전쟁, 임진왜란」, 『내일을 여는 역사』 제1호, 서해문집, 2000, 88쪽.

56) 한명기, 「임진왜란 시기 '再造之恩'의 형성과 그 의미」, 『동양학』 제29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9, 2쪽.

57) 한명기, 위의 글, 10쪽.

## V. 결 론

이상에서 교육과정 변천에 따라 조선시대의 대외관계 및 전쟁에 관한 『고등학교 국사』의 서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임진왜란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국사교과서의 조선시대 대외관계사 서술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교과서의 내용은 국가 수준에서 계획된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서술된다는 전제 하에 1차 교육과정부터 현행의 7차 교육과정까지의 국사과 교육목표의 내용과 조선시대 대외관계사의 단원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각 시기별 교육과정이 교과서의 서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제 1차~2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식민사관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제 3차~4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군사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국민 통합의 논리로 국난극복사관이 강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 5차~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선거에 의해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전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었던 국난극복사관이 약화되었으나 단원의 구성으로 볼 때 국난극복사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조선시대 대외관계사 중 임진왜란에 관한 서술을 분석한 결과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국가적 위기에서 한 사람의 영웅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영웅사관을 벗어나지 못한 서술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임진왜란에서 수군의 승리는 전세를 뒤바꿔놓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이 수군이 활약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이순신의 탁월한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것

만을 서술하고 해전에 참여했던 다수의 장졸들과 민중의 희생은 서술하고 있지 않다. 임진왜란이라는 커다란 전쟁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구성원 전반의 희생적 노력의 결과일 터인데 이것이 영웅사관에 가려 교과서에 서술되지 않는 것은 교과서의 큰 문제이다. 또한 승전의 원인으로 이순신의 전략과 전술 보다는 애국심과 충성심에 비중을 더 두어 서술하였다. 이렇게 국가 위기 속에서 애국심과 충성심에 기반을 둔 민족적 영웅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애국심을 주입시키고 충성스러운 국가적 인간을 양성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의병의 역할을 확대·강조함으로써 국민 통합의 논리로 국난극복사관이 주입되어 서술되었다는 점, 전쟁사에 대한 비중이 약화되면서 현행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전쟁의 원인에서부터 영향까지의 서술이 추상화되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발견되었다.

민족사의 전개과정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으로 말미암은 국난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일은 분명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문제는 국가 중심의 시각에서 국난을 파악함으로써 민족의 전쟁사를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 강조·왜곡한다는 점이다. 『국사』 교과서가 국가·사회적 요구로부터 객관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제 3차 교육과정부터 실시되어 온 국정제를 폐지하고 검·인정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검인정의 형태로 교과서를 발행한다면 각각의 저자나 출판사에서 경쟁적으로 자료를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써 학계의 연구 성과가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교과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자기 민족, 국가 입장의 역사 서술 경향을 보인다. 완전히 객관적인 역사 서술, 가치중립적인 역사 서술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도

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세태에서 『국사』 교과서가 내용 선정과 구성에 있어서 객관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과거 역사의 반성과 그것을 토대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의식이 함양될 수 있을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 1. 교과서, 교육과정

- 제1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1955.
- 제2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문교부, 1963.
- 제3차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1977.
- 제4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1981.
- 제5차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해설』, 문교부, 1988.
- 제6차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1992.
-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사회-』, 교육부, 2001.

- 제1차 『고등학교 국사』, 이병도, 서울: 을유문화사, 1959.
- 제2차 『고등학교 국사』, 신석호, 서울: 광명출판사, 1971.
- 제3차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문교부, 1977.
- 제4차 『고등학교 국사』, 문교부, 1982.
- 제5차 『고등학교 국사』 상·하, 문교부, 1990.
- 제6차 『고등학교 국사』 상·하, 교육부, 2000.
- 제7차 『고등학교 국사』, 교육과학기술부, 2008.

### 2. 연구논저

#### 1) 저서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9-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국사편

찬위원회, 1995.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2-조선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1995.

김종수,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 5권』, 서울: 숲, 2002.

김한중, 『역사왜곡과 우리의 역사교육』, 서울: 책세상, 2001.

손승철, 『조선시대 대일관계사 연구』, 서울: 지성의 샘, 1994.

양호환 외 공저,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서울: 책과 함께, 2005.

이경환 외 공저, 『한국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2.

정선영 외 공저, 『역사교육의 이해』, 서울: 삼지원, 2001.

최상훈 외 공저,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서울: 책과 함께, 2007.

최영희, 『임진왜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서울: 역사비평사, 1999.

한일관계사 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서울: 경인문화사, 2005.

## 2) 논문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운동을 통해 본 조선사회」, 『지역과 역사』 23호, 부경역사연구소, 2008.

김종철, 「국사 교과과정의 변천과 그 문제점」, 『역사교육』 61집, 역사교육연구회, 1997.

김진호,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61집, 전국역사교사모임, 2003.

김한중, 「역사의 표현형식과 국사교과서 서술」, 『역사교육』 76집, 역

- 사교육연구회, 2000.
- 김한중, 「한국의 교육개혁과 역사교과서」, 『강원인문논총』 5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 김한중, 「해방 이후 국사교과서의 변천과 지배이데올로기」, 『역사비평』 17호, 역사문제연구소, 1991.
- 김홍수, 「20세기 한국의 역사교육사」, 『역사교육』 70집, 역사교육연구회, 1999.
- 도면희, 「한국근대사 서술에서의 민족·국가문제」, 『역사비평』 58, 역사비평사, 2002.
- 류승렬, 「국사교과서 편찬의 제문제와 개선방향」, 『역사교육』 76집, 역사교육연구회, 2000.
- 류승렬, 「해방 후 교육과정 변천과 역사교과의 위치」, 『역사교육』 60집, 역사교육연구회, 1996.
- 박길자, 「교육과정에 반영된 지배이데올로기의 비판적 고찰」,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박진동, 「해방 후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추이」, 『역사교육』 91집, 역사교육연구회, 2004.
- 서중석, 「국사교과서 현대사 서술」, 『역사비평』 56, 역사비평사, 2001.
- 신병철, 「권력의 홍보물 국정 국사 교과서 -국정 국사 교과서 현대 부분 분석-」, 『교과연구』 7, 통일시대교육연구소, 1996.
- 안병우, 「국사 교과서 검정제에 관한 검토」, 『국사 교과서 발행제도 개선연구』, 국사편찬위원회, 2003.
- 안승대, 「이데올로기론에 따른 교육이념의 역사변천과정」, 『교육문제연구』 27집,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2007.
- 양호환, 「역사교과서의 서술양식과 학생의 역사이해」, 『역사교육』 59,

- 역사교육연구회, 1996.
- 오종록, 「민족 주체사관으로 보는 정답의 역사 -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분석 사관 문제를 중심으로」, 『내일을 여는 역사』 6호, 서해문집, 2001.
- 오종록, 「선조-광해군 때의 정치관」, 『내일을 여는 역사』 14호, 서해문집, 2003.
- 오종록, 「여러 얼굴의 전쟁, 임진왜란」, 『내일을 여는 역사』 2호, 서해문집, 2000.
- 오종록, 「역사교육이 가야할 길」, 『역사와 현실』 61호, 한국역사연구회, 2006.
- 오종록,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이순신 관련 서술의 문제점과 제언」, 『한국사학보』 16, 고려사학회, 2004.
- 오종록, 「壬辰倭亂~丙子胡亂時期 軍事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軍事』 38, 國防軍史研究所, 1999.
- 우인수,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내용 분석」, 『역사교육』 82집, 역사교육연구회, 2002.
- 윤유숙, 「임진왜란 발발 전 한일교섭의 실태」,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05.
- 윤종영, 「식민주의사관 논쟁에 휘말렸던 국사 교과서」, 『교과서연구』 통권 제39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
- 윤 황, 「정치사회화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규배, 「임진왜란의 기억과 조선시대의 일본인식 -반일감정의 단초를 찾아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 이병희, 「국사교과서 국정제도의 검토」, 『역사교육』 91집, 역사교육연구회, 2004.
- 이신철, 「국사 교과서 정치도구화의 역사 -이승만·박정희 독재정권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97집, 역사교육연구회, 2006.
- 정선영,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정책의 현황 및 개선 방향」, 『교육연구논총』 제23권 3호,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 2002.
- 차미희, 「중등 국사교육의 내용 변천에 대한 연구 : 국사과 독립 시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최완기,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내용구성과 특성」, 『역사교육』 48집, 역사교육연구회, 1990.
- 한명기, 「조선과 명의 사대관계」, 『역사비평』 50호, 역사문제연구소, 2000.
- 한명기, 「임진왜란과 명나라 군대」, 『역사비평』 54호, 역사문제연구소, 2001.
- 한명기, 「임진왜란 시기 ‘再造之恩’의 형성과 그 의미」, 『동양학』 29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9.

## **Abstract**

**A study on the description about International Relationship  
and War in Chosun Dynasty of History Textbooks for  
High School Students  
- Focused on the Imjin War -**

Han, Yun-young

Dept. of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 curriculum represents educational ideas and purposes of a country. In the case of Korea, the curriculum has been influenced and amended by changes of political systems. Moreover, textbook systems and details of description has been reorganized when the curriculum was revised. For 37 years since Korean history textbook has been published in an authorized textbook from the third curriculum to the present curriculum, it has been criticized because its course of description had been changed by policy, ideology of government and especially political authority of those days.

This thesis tries to analyze characters and controversy of description in textbooks as mentioned above that the description of Korean history for high school students was changed as national and social request.

In particular, it is prepared to study contents of textbooks about the Imjin war(Japanese invasion of Chosun Dynasty in 1592) from the first curriculum to the seventh curriculum. This war was a big event which completely shook the society to its very foundation and an international war related to othe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lso, it is important so far because it is a standard when dividing Chosun Dynasty into two periods. When this war was emphasized as a program to overcome a national crisis and unify people by the political power in the Yushin system period(維新政權) in a dilemma, the duty of the loyal army and Yi, Sun-sin in the war was stressed, either. In addition, the program of overcoming a national crisis and heroism in the forth curriculum was stressed more than the third one for political requirement of the junta.

To cope with a big event such as the Imjin war was owing to the sacrifice of all social standings in Chosun Dynasty. However, the heroism of political power in the Yushin system period(維新政權) obstructed it, so that it has been a drawback of textbook contents. It has been also drawbacks that a national concept was inserted as a history about struggle against Japan into people to emphasize unification and overcome a national crisis and the origin, process and effect of the war were abstractly explained in the present as well as weakening relative importance of war history.

It is certainly valuable to teach students how ancestors got over wars. Though, there is shortcoming that the government emphasizes and distorts war history for their necessity as they recognize a crisis

in a national centered view. The priority to ensure objectivity and autonomy of history textbooks is to publish in an authorized textbook free from a state textbook.

A history textbook tends to reflect a national standpoint and it is difficult to avoid reflection of it since completely objective and neutral explanation is impossible. Nevertheless, it is important to get autonomy of selection and organization about contents in recent situation that history textbooks has to be amended every time the administration changes. If objectivity and autonomy of history textbooks are guaranteed, historical awareness for the future can be cultivated on the basis of reconsideration about their history.